

心理學에 대한 社會의 認識*

車 載 浩

서울大學校 心理學科

本 調査는 一般人이 心理學에 대해 어떤 理解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려고 한 것이다. 心理學이 비록 科學이긴 하나 學問이 維持되려면 一般人이 그 學問의 必要性을 인식하고 또 社會의 有用性을 認定해야 하는 것이다. 一般人이 이 學問에 대한 關心과 뒷받침이 있어야만 心理學이란 科學이 韓國에서 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心理學은 특히 社會의 沒理解와 誤解와 不認定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된 여러가지 社會的인 條件을 들 수 있겠으나 우선 그러기 前에 현재 一般人이 心理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正確히 파악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心理學者가 當面問題解決을 위해서 할수 있는 첫번째 일이 이와같은 一般人의 心理學에 대한 認識에 관한 調查研究라고 생각해서 이 연구를 계획했다. 이런 調査의 結果가 發表되면 一般讀者들도 그들의 見解가 事實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고 그런 생각을 곧 是正하게 될 것이다. 偏見이나 無知가 維持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事實에 대한 feedback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다음에 이 조사에서 들어난 主要結果를 (1) 心理學에 대한 知識, (2) 心理學의 應用 및 職業展望에 대한 意見, 그리고 心理學과 心理學者에 대한 態도의 3개 묶음으로 제시해 보겠다.

여기서 보고하는 資料는 182명에서 얻은 質問紙反應이다. 被調査者의 成分을 보면 회사원 26명, 精神神經科醫師 21명, 軍將校 10명, 高校男教師 31명, 男子大學生 36명, 女子大學生 28명, 女高生 30명으로 되어 있다 (男高生과 女高校女教師는 全員 資料回收가 안 되었음). 質問紙는 8面으로 된 冊子로 모두 41個의 질문(選多型과 自由型)이 들어 있었다. 調査質問紙는 1976년 11월 9일에 배포되었다.

心理學에 대한 知識

“심리학을 접하게 된 상황”을 묻는 질문에서 成人들은 모두 大學강의를 통해서 접하고 있었다. 따라서 高校生(女高生)들은 心理學을 접해 보지 못했다. 成人들의 경우 이들의 心理學 知識이 오래전에 들은 대학강의가 전부라는 것은 그들의 心理學 知識의 기반이 얼마나 약하며 또 그 知識이 얼마나 해묵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동시에 이 사실은 大學에서의 心理學講義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어떤 心理學 用語나 知識을 다섯개 이내의 범위에서 들어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을 보면 ego, superego, id, Oedipus complex, 조건반사, conditioned reflex, complex, 리버트, 정신분석, reaction formation, S-R등으로 조건반사와 S-R을 빼고

* 本稿의 내용은 1976년도 韓國心理學會 第 次大會에 포함된 韓國社會와 心理學이란 主題의 발표자들에 발표 한 것이다. 本 研究에는 박대진, 권오식, 장영수, 김종진, 이재윤, 김년영, 이창순, 송영인, 이종범, 윤동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재학생들이 자료수집과 자료처리에 수고해 주었다. 또 같은 학과의 대학원생인 이진환은 연구의 전체 과정에서 도왔다. 이들의 열성이런 참여에 사의를 표한다.

는 모두 정신분석학에 속하는 용어들이다(표 1 참조). 조건반사를 高校教師는 국문으로 들고 있으나 기타 成人集團은 英語로 들었다. 의사들은 또 여러 臨床의인 용어나 檢査名을 영어로 들고 있다. 각자가 내놓은 용어들이 서로 중첩되는 일

못한 것을 보면 다시 한번 心理學講義가 고르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는다. 女高生들이 알고 있는 心理學分野는 아동, 青年, 教育心理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달심리의 경우 아동심리, 청년심리를 언급하면서 “발달심리”란 말이 나오

표 1. 각 응답자 집단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心理學用語들(2회以上 언급된 것만 收録했음)

應答者集團	用語의 개수	用語들(出現頻度は 괄호 안에)
女大生 (N=28)	43	S-R(7), 退行(7), field theory(6), 정신분석(6), TAT(5), conditioned reflex(4), projection(4), Oedipus complex(4), ego(4), superego(3), 프로이드 이론(3), 내성법, 무의식, 보상, 행동주의, 감정이입, 인지이론, 고착, 시행착오
男大生 (N=36)	23	ego(1), id(8), superego(4), 무조건반사(4), 리비도(3), 교육심리, TAT, 학습, 임상심리, Oedipus complex, 좌절, 프로이드 이론, self
軍人 (N=10)	26	conditioned reflex(5), 성격(4), Oedipus complex(3), 정서
會社員 (N=26)	22	Oedipus complex(5), conditioned reflex(4), 잠재의식(3), ego, Electra complex, 사회심리학, 노이로제, 심층심리
醫師 (N=21)	39	reaction formation(1), projection(6), ego(6), superego(6), id(6), IQ(4), masochism(4), sadism(4), Rorschach(3), MMPI, 自閉症, fadism, Gestalt psychology
教師 (N=31)	43	조건반사(9), 잠재의식(3), 카타르시스(3), 리비도, 자아, 기억과 망각, 동일화과정
女高3년 (N=30)	4	complex(4), 열등감(3), 교육심리, 아동심리

이 거의 없었다. 같은 心理學과목이라도 배운 내용이 심하게 다르거나 卒業後 職業에 따라 把持되고 새로 習得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入門書들의 內容이나 講義內容의 標準化가 필요한 것 같다. 또 女高生은 넷밖에(complex, 교육심리, 아동심리, 열등감)대지 못하고 있어 高校生에게 心理學이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心理學의 分野를 아는데로 들어라”라는 질문에는 아동심리(25%), 사회심리(15%), 범죄심리(12%), 청년심리(12%), 교육심리(9%), 임상심리(7%)등이 비교적 자주 언급되고 생리, 동물, 실험, 성격 등은 가장 드물게 언급되었다. 교육심리는 이제는 心理學보다는 教育學에 소속되는 것인데 또 犯罪心理學은 心理學이 별로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인데 언급이 되는 반면 心理學의 基礎分野인 生理, 動物, 性格, 實驗 등 心理學分野는 잘 언급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被調査者集團別로 알고 있는 分野도 고르지

지 않은 것은 발달심리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심리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선다형 물음에 대해 나온 대답은 실험, 조사, 정신분석, 사유(思惟)등의 순인데 그래도 대학생들이 실험을 가장 많이 들었다. 한편 女高生들은 어느 集團보다도 精神分析, 催眠을 많이 선택한다. 現今의 大學의 心理學講義가 그래도 心理學이 實驗과 調査를 주요 방법으로 쓰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女高生의 無知는 여기서도 들어났다.

“심리학이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다는 사실을 아는가”란 물음에 전체의 85%가 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女高生은 약 50%만이 안다고 대답했다. “심리학은 성질상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 중 어느 계열에 속해야 하는가”란 물음에 사회과학(41%), 인문과학(32%), 자연과학(14%), 의학(14%)의 순으로 대답이 나왔다. 女高生의 답은 모든 選肢에 흩어져 나왔다. 현재 文敎部는 心理學을 人文分野로 分類해 놓고 있고, 서울대의 경우 心理學科는 社會科學

大學에, 中央大의 경우에는 文理大 文學部에 그리고 高大는 人文大에 속해 있다. 一般人들도 心理學의 소속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학이 철학에 더 가까운가, 과학에 더 가까운가”라는 질문에는 반반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集團別로 會社員들은 心理學을 “과학”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반해 女高生과 醫學者들은 철학으로 보는 경향이 가장 심했다. 아직도 心理學을 철학과 같거나 그것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 준다. 社會科學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과학적으로 발전한 심리학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안되어 있다.

대한민국 학술원만 하더라도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은 독립분야로 인정하면서도 철학과 거리가 먼 심리학을 미학, 종교학, 논리학 등과 함께 철학분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基礎가 되는 학과목은 다음중 어느 것인가”라는 질문에 철학(25%), 통계(24%), 생리학(22%), 논리학(20%)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물리학, 화학도 選肢에 있었으나 택한 사람은 거의 없다. 여기서 어느 것도 완전한 正答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生理學과 統計學이 가장 正答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哲學과 論理學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것은 먼저 살핀 질문에서와 같이 一般人들이 科學으로서의 心理學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다.

심리학에서는 기구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點尺度에 답하게 했는데 대다수가 “상당히” 또는 “이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집단별로는 女學生과 軍人들이 가장 사용률을 낮게 보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심리학이 고등학교 교과목으로 채택된 적이 있는데 아는가”라는 질문에 알고 있는 사람은 7%에 불과했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사였다. 회사원도 몇명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6.25사변 전에는 심리학이 梨花女高 등 몇개 학교에서 교과목에 들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국내의 심리학자들 가운데로 모두 적어라”라는 요구에 대해 나온 답을 보면 국내외를 통틀어 알려져 있는 심리학자들은

張秉琳교수와 프로이드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張교수의 知名度는 오히려 프로이드를 능가하고 있다(60回 對30回), 특히 회사원층에서는 거의 모두가 張교수를 들고 있다. 그리고 5回以上 指名된 國內심리학자는 5, 6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피조사자가 든 國內學者는 약 35명이다.)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약 10余名の 教育學者, 哲學者, 社會學者들의 이름: 김태길, 이규호, 박준희, 정범모, 권인희, 고영복, 이상주, 신세호, 이영덕, 김남수, 이홍우, 김호권, 손병현, 박희승, 김성일, 이재훈, 유재봉, 안은희, 김언주)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개중에는 誤認에 속하는 것도 있지만 이들의 相當數는 실제로 心理學의 貢獻을 한 사람들이다. 教師들이 이는 心理學者는 教育分野에서 活躍하는 學者들과 서울大學校 밖의 學者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大生으로 구성된 大學生集團이 이는 心理學者와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었다. 女高生들은 장병림교수나 프로이드도 몰랐다. 高校教師는 19명(國內外 心理學者: 19명, 男大生은 24명을, 그리고 女大生은 27명을 알고 있어 가장 心理學者를 많이 알고 있는 편에 속한다. 醫師는 13명(國內學者는 6명으로 모두 臨牀界의 學者들이었음), 軍人은 8명, 그리고 會社員은 3명밖에 모르고 있다. 대체로 大學教育이 心理學의 知識을 넓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에서 학생수가 많은 순서대로 다음 학과들을 배열해 보아라”라는 질문(8개 학과를 수었음)에 나온 순서는 경영-경제-사회-정치-외교-사회사업-심리-인류로서 심리학과를 작은 학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미국 등지에서 심리학이 가장 큰 학과중의 하나라는 현실과 크게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市販되고 있는 심리검사의 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자유형 질문에 “모른다”라고 한 사람들이 전체의 63%였고 4~6개라고 보고한 사람들이 18%, 7~10개로 본 사람들이 10%가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市販되고 있는 心理檢査의 수는 1968년 현재로 약 160개가 된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心理學者들까지도) 지금 市販되고 있는 心理檢査의 가지수나 종류를

인지 못하고 있다. 더 널리 검사에 대한 情報을 알릴 필요가 있다.

心理學의 應用 및 職業展望에 대한 意見

29개의 심리학의 應用領域들을 들고 “다음 어느 영역에서 심리학이 필요한가, 가장 심리학을 필요로 하는 것, 5개를 고르시오”라는 질문에 가장 자주 선택된 응용영역은 청소년 문제, 정신장애자 치료, 집단지휘, 정신건강, 학습지도 등으로 이 순서대로 자주 지적되었다. 精神科醫師들은 臨床的 應用領域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高校教師들은 教育에서의 應用을 강조했다. 전체적 반응경향에서 두드러진 것은 이들 피조사자들이 보고 있는 心理學應用領域이 꺾 제한되어 있고 특히 產業場面에서의 應用을 잘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심리학자가 회사에 취직할 경우 잘 맞는 분야는?”라는 질문(총무부, 인사부, 영업부, 기획부, 판매부, 광고부 중에서 택일)에 인사부가 압도적으로(39%) 많이 선택되고 다음이 광고부(35%), 기획부(10%), 판매부(7%)의 순이었다. 위와 같은 선택 경향은 특히 會社員들에 뚜렷하지만 女高生들도 광고와 인사를 가장 많이 들고 있어 회사내에서의 심리학자의 역할에 관한 한 固定觀念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心理學 專攻者의 社會進出機會는 어떻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5點尺度로 대답하게 했었는데 “아주 밝다” 또는 “밝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34%이었고 “아주 어둡다” 또는 “어둡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2%이었다. 전반적으로 “보통”보다는 약간 더 밝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집단별로 보면 高校教師, 醫師, 會社員들이 가장 展望을 나쁘게 보고(26% 내지 29%가 밝게 봄) 軍人들이 가장 좋게(70%가 밝게)보고 있다. 高校教師들은 高3擔當教師들이나 高校卒業生들의 進學指導를 받은 이들이 心理學의 職業的 展望을 어둡게 보고 있으므로 하나의 問題라 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啓蒙의 必要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다른 筆者의 연구(車載浩, 1976)에서 서울大生들은 心理學科生의 就業展望을 社會科學大學의 地理學科나 人類學科, 政治學科와 더불어 가장 나쁜 학과로 보며 이런 흐린

就業展望이 今年에 心理學科가 社會系列에 入學한 大學生들에게 人氣가 없는 이유로 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p. 82참조).

그러나 高校教師들의 이러한 態度는 단순히 心理學 자체에 대한 인상이 나빠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님이 다음 결과에서 드러난다. 질문은 “心理學 공부가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45%가 “유리하다”로 보고 13%는 불리하다고 보았다(“마찬가지”는 42%), 그런데 의사와 회사원이 가장 불리하다고 본 반면 高校教師들은 가장 유리하게 보았다. 15명이 “유리하다”고 보았는데 “불리하다”고 본 것은 단 1명뿐이었다. 이것은 教師들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다.

“각 기업체에 작업능률향상 및 작업조건개선을 돕는 직무를 맡아 보는 심리학 전공자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나 집단별로는 회사원과 교사가 가장 덜 인정하는 편이었다. 高3擔任教師들의 態度가 여기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大學生들과 軍人들은 심리학 전공자의 필요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고민이나 실적갈등이 있을 때 친구, 선생, 부모 대신 심리학자를 찾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6%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물론 이것은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태도 자체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은 그 태도를 반영할 것이다. 즉 “심리학자가 부모, 선생, 친구보다 더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55%가 “네”라고 대답해 심리학자 상담대상으로서 어느 정도 불신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이 강했던 것은 醫師들과 教師들이었으며(각각 약 30%가 “네”로 응답)반면 會社員과 女高生들은 가장 신임하는 쪽이었다(각각 약 50%가 “네”로 답했음).

“정신건강 상담기구나 연구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4點尺度상에 반응케했던 바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女高生들과 女大生들이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는데 이것은 이러한 機構가 女性의 役割伸張의 기회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심리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

문에 92%가 받아 본 일이 있다고 대답해 거의 모두가 받아 보았음을 알 수 있는데 아직도 8%는 아무런 심리검사도 받아 보지 못하고 있음이 놀랍다. 이렇게 심리검사를 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가 高校教師로서 이들의 약 3분의 1이 심리검사를 받아 보지 못했다. 아마 寿命의 差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男子高校教師들은 다른 집단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 검사가 얼마나 신뢰롭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롭다”(63%)와 “그저 그렇다”(33%)라고 반응했는데 심리검사의 신뢰도면에서 가장 심리검사를 받는 것은 軍人と 高校教師層이었다. 가장 불신하는 것은 女高生과 女大生들로 거의 半數가 “그저 그렇다” 또는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음 질문은 “받아 보신 검사의 종류와 받은 장소는?”이었는데 適性檢査가 42%, 知能이 50% 이었으며 그밖에 약 7%가 性格檢査를 받아 보았다. 興味檢査를 받아 본 사람은 女大生 한명 뿐이었다. 場所는 78%가 學校이었고 나머지가 研究所, 會社, 病院, 新兵訓練所 등에서 받았다. 學校外에서는 아직도 心理檢査가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검사를 받으면서 누가 그런 검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에 “心理學者가 만들었다”가 69%이고 “아니다”가 31%였다. 教師와 軍人은 거의 全部가 심리학자가 만들었다고 생각 하는데 會社員과 女高生の 約半數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心理學과 心理學者에 대한 態度

“당신의 전공분야에 심리학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은 女高生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질문이다. 5點尺度上에 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또는 “꼭”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전체의 60%에 달한다. 특히 필요성을 높이 인정한 집단은 女大生들과 醫師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心理學에 대한 態度는 대체로 다른 部類의 사람들 보다 好感的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心理學者에 대한 態度를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질문을 삽입하였는데 “心理學을 공부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물음에 44%가 안다고 대답했고 “상대가 심리학자라고 더 솔직

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더 조심되거나 주저했었습니까?”라는 물음에 “더 솔직해진다”가 56%로서 “더 조심하게 된다”(44%)는 반응보다 많았다. 적어도 심리학자 일반에는 더 솔직하게 되지 않을지 몰라도 알고 있는 심리학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보다 더 솔직해지는 것 같다.

“앞으로 心理學者를 사귀게 되면 더 솔직하게 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77%의 응답자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대답해 대체로 心理學者에 대해 경계하게 된다는 一般的인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더 솔직하게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心理學者는 거동 하나만 보고도 사람마음을 알아 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14%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유독히 女高生들만이 약 30%가 그렇다고 대답해 그들이 心理學者의 能力을 가장 盲信하고 있는 것 같다.

“心理學者는 精神異常者를 치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71%가 “있다”고 대답했는데 집단별로는 軍人들과 女高生들이 가장 積極的인 반면 醫師들(精神神經科醫師들)이 가장 회의적이었다. 그들의 5분의 4가 心理學者는 정신이상자를 치료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다만 이들의 경우 그 답이 心理學者의 治療能力의 缺乏을 뜻하는지 또는 心理學者는 治療해서는 안된다는 뜻인지 分明치 않다. 이 문제를 좀 더 직접 물어 볼 질문(“정신건강 관리와 치료는 精神科 醫師와 心理學者중 누가 더 잘 하는가”)에 절반 이상이 精神科醫師가 더 낫다(67%)고 대답하고 心理學者가 더 낫다고 말한 사람들은 少數派에 속했다(37%). 대개 精神科醫師의 편을 든 사람들은 醫師의 全部와 男大生과 會社員들의 대부분이었다. 女高生들이 가장 心理學者를 두둔한 편으로 양쪽의 支持票가 대략 半分線에서 갈렸다.

“心理學者는 일반인보다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가”라는 물음에 63%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가장 心理學者의 能力을 不信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會社員, 醫師, 그리고 男大學生들이었다. 軍人, 男高校教師, 女高生들은 대부분 心理學者의 能力을 믿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高

校生 3年生들을 담당하고 있는 教師들이 心理學者의 能力은 是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지만 高校教師들은 心理學 專攻者의 社會進出에 대해 극히 회의적이다.

“심리학”이란 낱말에서 聯想되는 것들을 적게 했던 바 특히 心理學에 대한 態度를 反映하는 것들만 피조사자 집단별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재미 있다; 말 듣자 마자 꼭 막힌다(이상 女大生) 심판대에 서는 기분; 추상적; 상식적인 것을 까다롭게 따지고 이유를 붙임; 인간을 배울 수 있는 학문; 허무함; 철학자; 이상 會社員); 심쟁이; 철학; 심오함;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캐보려는 학문; 불완전 인간이 만든 통계틀 이용하는데 완전한 심빙성은 없으나 고려저력 이용해 볼 가치는 있다(이상 男大生); 딱딱한 냉정한 학문; 연구에

교적 자주 나타났다. 女高生의 경우는 연상의 數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나온 모든 연상은 표 2에 나와 있다.

心理學을 精神分析과 결부시키는 경향은 以前의 연구(車, 1976, p. 86)의 결과와 같다. 그밖에 心理學을 재미있지만 어렵다고 보거나 지나치게 까다롭게 사물을 따지는 학문이라는 一般人의 印象이 드러난다.

要 約

182명으로 된 任意標集(會社員, 精神神經科醫師, 軍將校, 高校男教師, 男子大學生, 女子大學生, 그리고 女高生)을 대상으로 質問紙를 통하여 心理學에 대한 知識, 心理學 應用 및 職業展望에 대한 意見, 그리고 心理學과 心理學者에

표 2. 각 응답자 집단에서 얻은 “心理學”에 대한 聯想들

集 團	聯 想 內 容
女大生	재미있다, 말듣자 마자 꼭 막힌다, 정신병치료, 복잡한 현대세계에서의 정리, 의식과 무의식
男大生	심쟁이, 인간심리, 철학, 심오함, 행동심리, 잠재의식, 문학, 인간 마음의 내재성, 발달심리, 본능, 대학, 범죄심리, 실적감동, Freud, 교육심리, 언어심리, 생리심리, 과학적 기구 방법론, 유럽, 심리학자, 인간, 성격,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캐보려는 학문, 인간의 감정,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통계적 인 것이므로 완전한 심빙성은 없지만 통계틀 벗어나는 특별한 존재도 없으므로 이용해 볼 가치가 있다
軍 人	인간의 심리 이해, 성장발달에 대한 심리변화, 본능이해, 정신병치료, 상담, 학문실용, 행위예측, 원인과 결과 탐구, 인간의 내면세계 분해, 범죄수사연구, 청소년선도, Freud, 정신과 의사, 뇌병원
會社員	심판대에 서는 기분, 최면, Freud, 정신병, 추상적, 논어, 맹자, 임상심리, 교육심리, 아동심리, 상식적인 것을 까다롭게 따지고 이유를 붙임, 인간을 배울 수 있는 학문, 철학자, 의사, 정신분석, 상담자, 고백, 이상심리, 심리상태 계산을 통한 자기개발, 허무함, 사고방식 수정
醫 師	mechanism, sadism, psychoanalysis, 심리주의자, 인간, 사회, 흥미, Freud, Jung, Exorcist, 성격, 결정, 개선, 용기, 심비스러운 학문
高校教師	Freud, IQ, 범죄분석, 인간심리과학, 인간형성, 냉철함, 남의비밀, 기억, 망각, 연설, 여론조사, 꿈, 학습, 조선반사, 인격, 인간행위는 심리를 바탕으로 노출
教師(男)	학습, 조선반사, 인격, 인간행위는 심리를 바탕으로 노출
女高生	딱딱, 냉정한 학문, 연구에 난점이 많다, 상대방 입장을 잘 받아 줌, 아동심리학, 마음이 끌림, 인간 심리를 연구, 독심술

난점이 많다; 상대방 입장 잘 받아 줌; 마음이 끌림; 독심술(이상 女高生); 냉철함; 남의 비밀(이상 高校教師); 실용적 학문(軍人). 醫師集團은 態度를 반영하는 自由聯想을 내지 않았다. 態度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聯想들로서는 “프로이트”의 이름은 女高生과 女大生집단을 뺀 나머지 5개 集團에서 나오고 그밖에 “범죄심리 또는 분석”, “정신병”, 그리고 “아동” 또는 “발달심리” 등이 비

대한 態度를 調査했다.

이들은 전체로서 心理學에 대한 知識을 대학 강의를 통해 얻고 있을 뿐이며 알고 있는 내용도 극히 초보적이고 精神分析 方면의 지식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高校生은 거의 心理學을 알지 못하고 있다. 心理學 分野들 이름 중에서 生理心理, 動物心理, 性格心理 등은 잘 알려져 있지 못하고 言語心理나 數理心理 등은 전혀 알려

서 있지 않은듯 하다. 犯罪心理와 教育心理은 심리학에서 중요시하지 않는 分野인데 오히려 心理學의 分野로 알고 있었다. 괴형자의 소속집단에 따라 알고 있는 心理學 知識이 꼭 다른 것으로 비하여 心理學의 入門水準의 講義의 標準化가 시급하다는 示唆을 받는다. 이들은 대체로 心理學을 社會科學 또는 人文科學으로 보나 自然科學으로는 보지 않는다. 또 아직도 半數가 心理學이 科學보다는 哲學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다. 특히 醫學者들이 이런 경향이 농후한 것은 놀랍다. 社會科學 分野중에서도 科學的 地位가 가장 높은 心理學의 認識이 약되어 있다.

國內心理學者로 普遍的으로 알려져 있는 이는 張秉琳教授 한 사람뿐이다. 그리고 相當數의 心理學者 아닌 사람들이 心理學者로 誤認되고 있다. 外國學者로는 프로이트만이 널리 알려져 있다. 一般人은 心理學科가 外國에서도 弱小學科인 것으로 誤認하고 있다.

心理學的 應用領域으로 알고 있는 분야중에서 주요한 것은 청소년 문제, 정신장애자 치료, 집단지휘, 정신건강, 학습 지도 등인데 産業場面에서의 응용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회사에서의 心理學者의 직무로 적합하다고 보는 것으로는 人事와 廣告를 든다. 心理學者의 社會 進出機會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약간 밝은 편”으로 그리 밝게 보게 않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高校教師(3학년담임들)가 가장 展望을 흐리게 보았다는 사실은 이들이 高校卒業班 指導를 담당하고 있음에 비추어 중시해야 할 문제이다.

이들은 心理學者가 고민과 같은 個人的인 문

제가 생겼을 때 도울 수 있다는 것에 確信을 갖고 있지 못하며 특히 醫師나 教師가 心理學者의 이 相談役割에 대해 회의론 느끼고 있었다. 心理檢査는 대개 한번씩 받아 보았지만 아직 못 받아본 사람도 더러웠다. 특히 高校教師의 약 3분의 1이 아직 아무 心理檢査를 받아 보지 못했다. 대체로 心理檢査를 신뢰하고 있는 편인데 받아 본 檢査의 主宗을 이루는 것은 適性檢査와 知能檢査이다.

心理學과 心理學者에 대한 態度에서 대체로 心理學이 必要한 學問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체로 心理學者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해 心理學者를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心理學者가 미술사처럼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생각은 女高生을 제외하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心理學者가 精神異常者를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유독히 醫學者들만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대상자들은 精神健康管理과 治療에 心理學者보다는 精神科醫師들이 더 適格者로 보는데 女學生들만은 心理學者편에 섰다. 心理學者가 사람을 이해하는 能力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수가 회의적인데 특히 會社員, 精神科醫, 男大生이 그러했다. 사람들은 心理學이란 말에서 재미있고 마음이 끌리는, 그러나 냉철하고 필요이상 사물을 까다롭게 따지는 어려운 學問을 연상한다.

參考文獻

車載浩. 學科에 대한 知覺의 豫備의 研究. 學生研究, 1976, 13, 71-88.